

“月 8800원에 번호 2개”... 이통사, 전용 요금제 경쟁 본격화

‘e심’ 시대 개막

KT 필두로 줄이어 요금제 출시 검토
부가서비스 우회... 차별 우려 해소
일부 신행 단말 위주 서비스 한계

KT가 오는 9월 1일 ‘듀얼번호’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이어 다른 이통사들도 e심 전용 요금제 준비에 들어가는 등 이동통신사들이 e심 전용 요금제를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당초 이통사들의 e심 전용 요금제 출시는 기존 유심 이용자에게 비해 더 저렴한 e심 가입자만을 위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KT는 이 문제를 피한 e심 전용 요금제를 내놓았다.

◆SKT·LG유플러스도 조만간 내놓는다

KT는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번호로 통화, 문자,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듀얼번호’를 9월 1일 출시하고 본격 듀얼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듀얼번호는



KT 고객이 ‘듀얼번호 버스’를 촬영해 SNS 올리는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 /KT

유심과 e심을 동시에 이용하는 ‘듀얼심’ 고객을 위한 요금제로, 저렴한 가격과 편리하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하나의 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니즈는 꾸준히 있어 왔다. KT는 이러한 고객 니즈를 반영해 듀얼번호를 기획했는데, SNS를 운영하는 고객, 또 다른 캐릭터인 ‘부캐’를 중시하는 MZ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듀얼번호는 월 8800원에 두 번째 번호용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데이터가 소진되면 최대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메인 번호의 음성과 문자를 두 번째 번호로 공유할 수 있다. 듀얼번호는 유심, e심을 메인으로 이용하는 고객 모두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도 e심 전용 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우리는 유보신고제의

적용을 받는 만큼 e심 전용 요금제 출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요금제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KT가 내놓은 것처럼 부가 서비스를 내놓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e심 전용 요금제 출시 준비에 돌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에서 e심 전용 요금제를 선보인 만큼 우리도 전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수준은 KT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단체 등, ‘e심 시장 확대’ 기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를 통해 요금제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통사는 특정 이용자가 차별받을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거나 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심 전용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유심 이용자에 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하지만 KT는 전용 요금제가 아닌 부가 서비스로 e심 전용 요금제를 선보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KT는 e심 요금제를 내놓은 게 아니라 부가 서비스 형태로 선보였는데, e심 전용 요금제를 선보이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부가 서비스의 형태로 내놓은 것”이라며 “e심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해도 기존 유심 요금제와 동일한 선이 될 것 같아 큰 의미는 없다. e심이나 유심을 선택할 꺼라면 기존 요금제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 부가 서비스는 회선 2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요금으로, 아직 수요 자체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국내에서만 상용화가 되지 못했던 e심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e심이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가입자는 이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e심 지원 단말기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세계 69개국에서 e심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같이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2023년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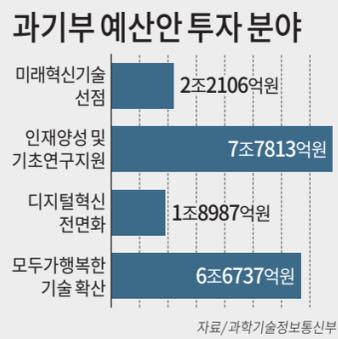
과기부, R&D 지원 확대... 4대 분야 18.8조 투자

(미래 혁신기술 선점 등)

지난해 추경 대비 4000억 증가
민관 협력 통해 첨단전략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부처 예산안으로 18조 8000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이는 2022년 추경예산 18조 4000억원 대비 4000억원(2.3%)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 7000억원이며, 이는 2022년 예산(29조 8000억원) 대비 3.0% 증가한 규모이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바뀌면서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조정을 했고, 예산 효율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대비 40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대한 예산을 효율화해서 쓰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가 중점 투자할 4대 분야로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변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 꼽혔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는 2조 2000억원이 투자돼 올해 대비 12.9%가 증가했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한다. 또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7조 8000억원이 투자돼 올해 대비 6.8%가 증가했다.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래적 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 전변화에도 올해 대비 9.5%가 증가한 1조 9000원이 투자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올해 대비 10.2%가 증가한 6조 7000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채윤정 기자



‘프로젝트 꽃’ 관련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왼쪽부터) 최수연 대표,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 /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 “SME·창작자 지원 확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회사의 글로벌 진출파트너인 소상공인(SME), 창작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새로운 ‘프로젝트 꽃’의 방향성에 대해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는 영상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31일 공개했다. 주제는 ‘팀네이버의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꽃’으로, 이날 자리에는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와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도 참석해 ‘프로젝트 꽃’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채윤정 기자

방통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 2555억 편성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예산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우선 재정이 수반되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해 157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

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또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통위는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등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늘렸다.

/채윤정 기자

대한항공

내달 부다페스트 신규 취항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맞춰 주요노선 운항 재개에 속도를 높인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는 269석 규모의 보잉787-9 여객기가 투입되며, 10월 한달간 주 1회 운항 후 10월 29일부터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